

본 작품은 픽션이며, 본 작품에서 묘사된 등장인물,
지명, 단체, 그 밖에 일체의 명칭, 배경, 설정 및 사건 등은
허구구적으로 창작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존 인물, 회사, 지명, 사건 및 제품을
특정 또는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빗장이 풀렸구나...
인간이 있느냐?

부둥

당신의 부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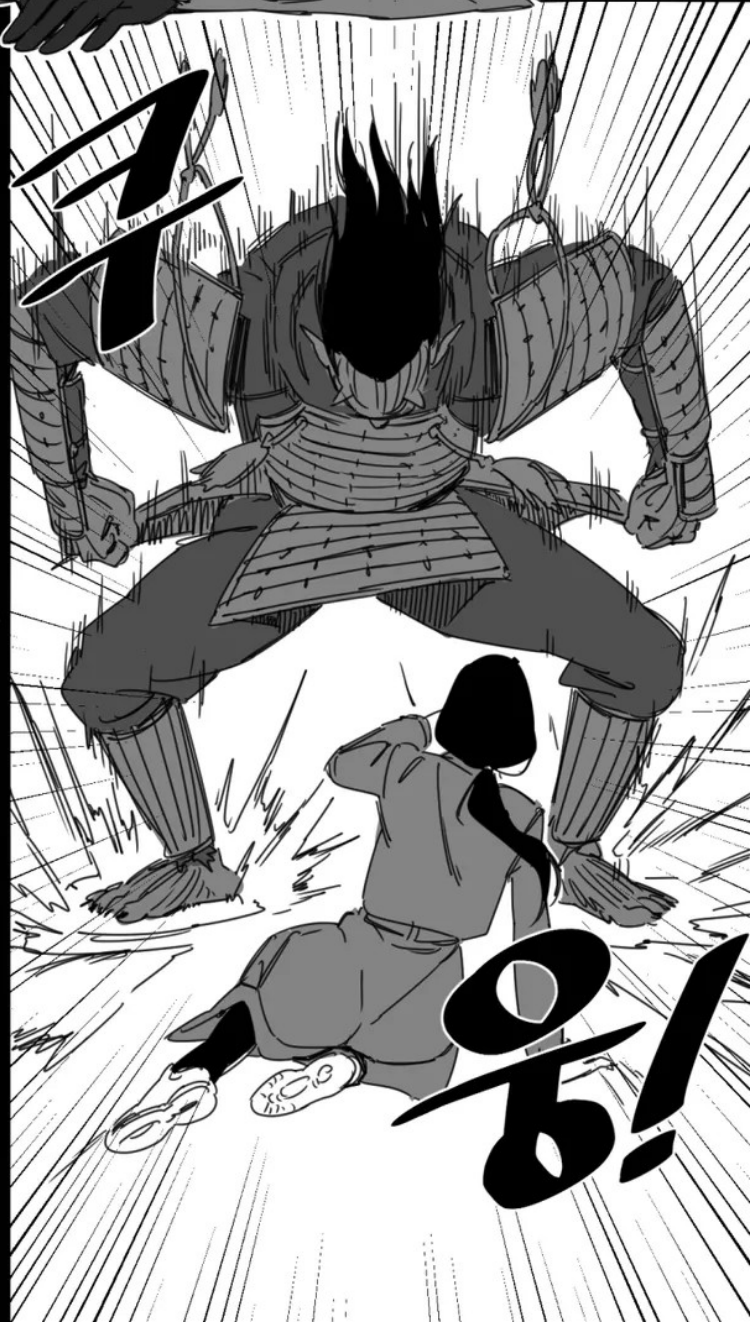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부둥

덜컹

휘

인간이다...





버틴다면...?!



또

정성껏
봉사하도록!

뭐야 이거...?
일본인이 아니었어?

자지 크기가
원래 키에
비례하는 건가?

아니,
애초에 가능한
사이즈야?



이런 거에
당해버린다면...!

쭈룩







죽을것같아...!
이러다 터져버리는 거야냐?

쑈겨 쑈겨

위장까지
강간당하고 있어...!



ㅋㅋㅋ,
암캐년한테 딱 어울리는
좋은 얼굴이구나.

음 음

츤겨 츤겨



크...
나온닷!

전부 삼켜라
몸종 조선 계집!



음 우뚝

웁켜 웁켜

꼬르륵

웁썩 웁썩



너까지 정액이 스며들어버려♥

뽕 뽕



뽕

30분 뒤-

조금만 더 힘내자.

봉질이랑 아저씨들이
곧 구해주러 올 거야..!

부둥

부둥

구워

궂
에에

천명

천명

퍼어

퍼

찌꺼

퍼

찌꺼

찌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미 보저랑 자궁은
너덜너덜해져버렸어...

찌꺼

찌꺼

찌꺼

사주에 아기가 없더라니,
이런 것 때문일 줄은...!

웃

그나저나 왜 이렇게
기분 좋은 거야 오니 자지잇♥

하웃

충령

충령

처음엔
아파서 기절했었지만,
왜 박힐수록
분이 좋은 거냐?!♥



양♥

양♥

뚜♥

뚜♥

무당이라
남자들한테도 기로
눌러본 적은 없었는데...

여자로서
이런 무력감은
느껴본적 없어♥

어떠한 교감도 없이
오직 한 남자의 성처리를
하기 위해 거칠게 다뤄지는 몸중.



이거 완전
고기 오나홀이잖아♥

이 남자 앞에선
신음 소리나는 청백 연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옥♥

온탕...!
뜨거운 거 또 들어와버렸♥



자궁이 타지도록
가득♥

음♥

뚜♥

뚜

품

자...잠깐!

천천히...!

음미♥

끄오옥?!

으쌔♥

으쌔♥

옥?!

음미♥

오옥

으쌔♥

웃?



칫, 망가져버린 건가.
못 써먹을 계집이로군.

오극♥

옥♥

안돼...!
지금 끝내버리면...

아쉬워...!
너무 아쉬워어!

하옥

더박아줬음
좋겠어♥

하

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줬♥

100년의 욕정을 풀려면
아직 부족하단 말이다!

다이묘여...
누가 되지 않는다면,

부디이쪽을
사용해주시길...♥

이런 천박한 말들이
뇌도 안 거치고
술술 나오다니...

미친한 몸종의
이더러운 구멍도
망가뜨려주시요...♥

정말로 성노예가
돼버렸어♥

크하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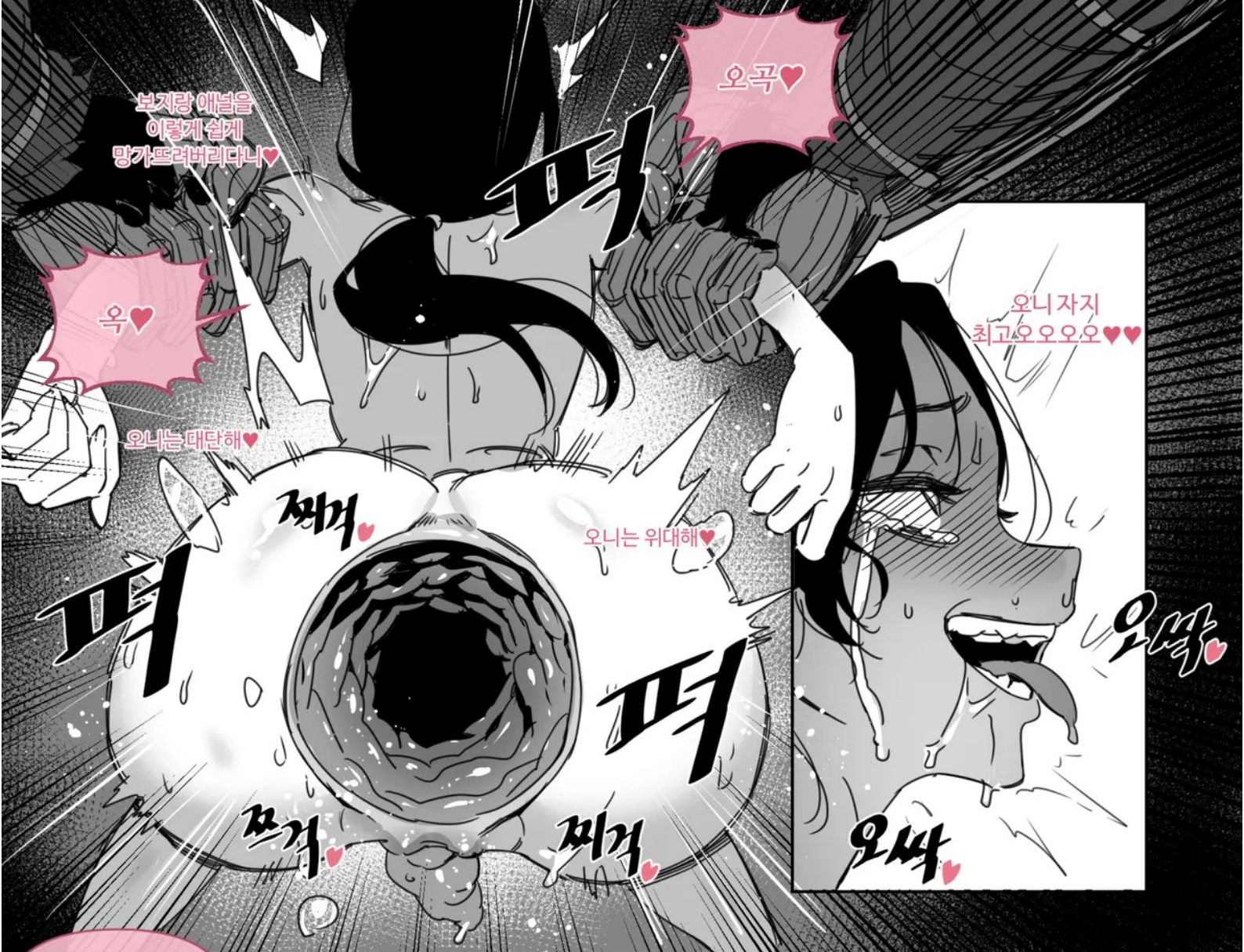
훌륭한 몸종의
마음이 짐이로다.

이런 천박한
계집은 처음보는군.

오욱♥

그럼
사양앓고 박아주지!

아젠
들어갈 수 없어...♥



보지랑 애널을
이렇게 쉽게
망가뜨려버리다니♥

오곡♥

옥♥

오니는 대단해♥

오니 자지
최고오오오♥♥

오니는 위대해♥

오썩♥

오싸♥



다이묘의 성처리 도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닷♥

천박한 조선계집
혈관에 흐르는
더러운 피 대신에,

다이묘의
농밀한 백탁액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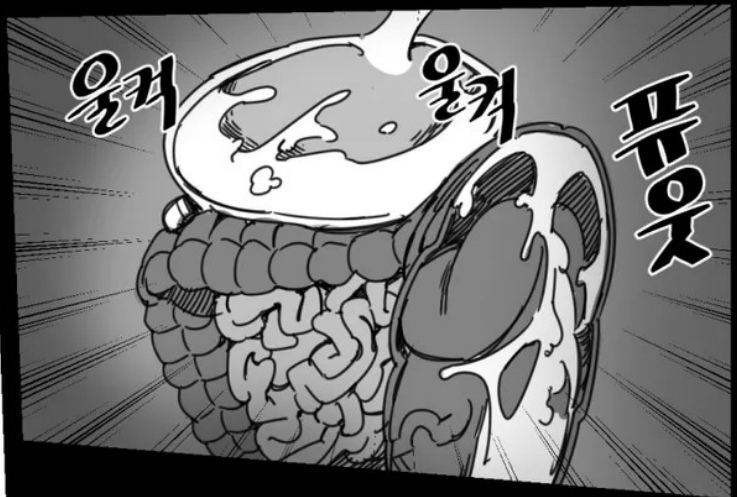
다이묘의
우람한 육봉으로
정복해주십시오♥♥



하아

냉음

하음♥





헤엣♥
허접한 조선 계집구멍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닷♥

뭔 소리지?
다이묘는 한 번 쓴 몸종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에?

100년만의
유히치곤 나쁘지 않았다.



누나!

탕!

헉..

화림이
누나!!

화르르...

이후 산 밑 마을의 처녀들이
연쇄 강간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본 작품은 픽션이며, 본 작품에서 묘사된 등장인물,
지명, 단체, 그 밖에 일체의 명칭, 배경, 설정 및 사건 등은
허구구적으로 창작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존 인물, 회사, 지명, 사건 및 제품을
특정 또는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鍵が外れたな...
人間がいるの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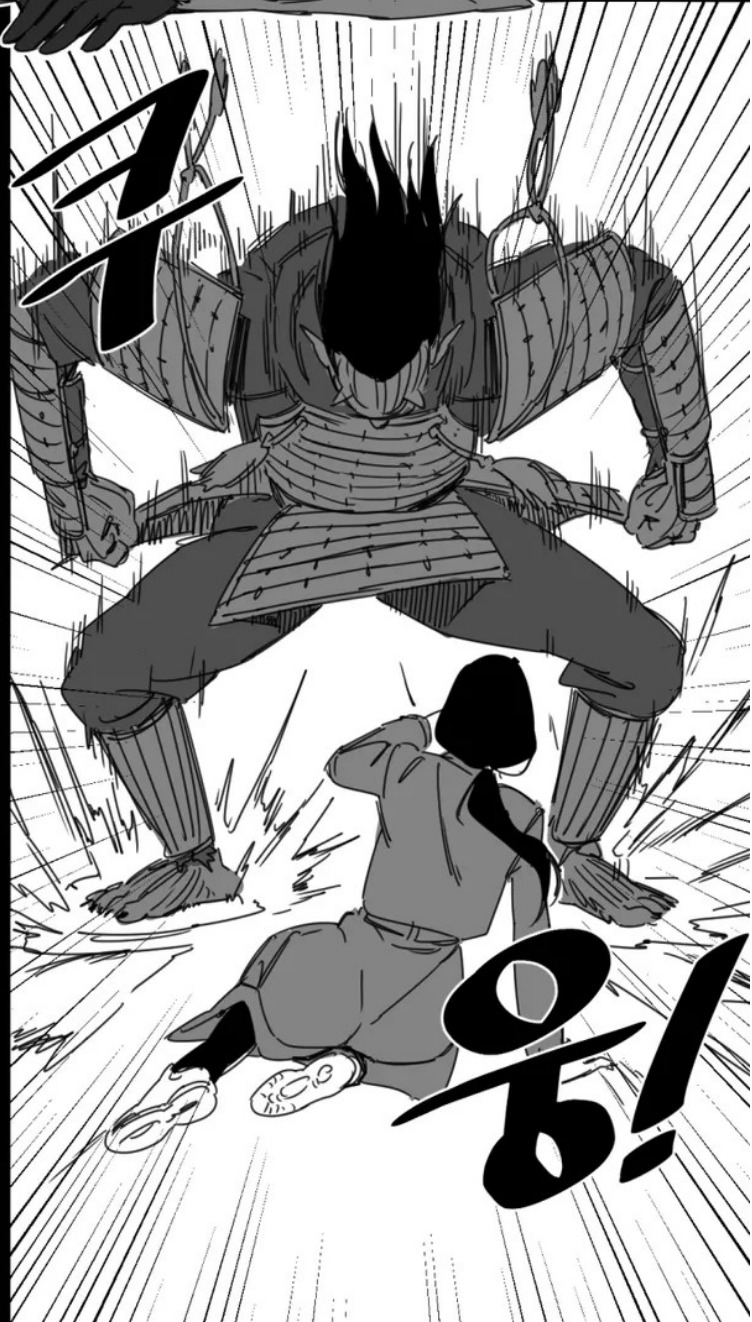
あなたの
部下です。

いいえ、
人間では
ありません。

ガタン

ひ

人間だ...





脚に力が.../
逃げるにはもう遅い。



少し古い方法だけど
生き残るため
にはこれしかない...!



...?



人間では
ありません



そうか...
禁欲の100年。

飢えも満たしたし、
少しの戯れくらい
はいいだろう。



よし、
ひとまず騙せた。

あとは奉吉とおじさんたちが
助けに来るまで...



あなたの
'従者'です。

耐えられるなら...?!



뚜

丁寧に
奉仕しろ!／

何だこれ...?
日本人じゃなかったの?

アレの大きさはもともと
身長に比例するののか?

いや、
そもそも可能な
サイズなのか?



こんなもの
にやられたら....!／

쭈



할싸

할싸







30分 後-

あともう少し
頑張ろう。

奉吉とおしせん
たちがすぐ助けに
来るんだ...!

퍼어

꺾
에에

천명

천명

퍼

찌꺼

퍼

찌꺼

찌꺼

どうしてこんなに来ないの?!!

もうアソコと子宮が
ボロボロになってしまった...

찌꺼

찌꺼

찌꺼

運命に子供がいなくて、
こんな理由だったんだね...!

んっ

それにしてもどうしてこんな
気持ちいいの? オコのアレ

はっ

충명

충명

最初は痛くて気絶したけど、
なぜ刺さるたびに気持ち
よくなるのか...♡



あん♡

퍼

즈저♡

즈저♡

あん♡

何の共感もなく、
ただ一人の男の
性処理のために荒々しく扱われる召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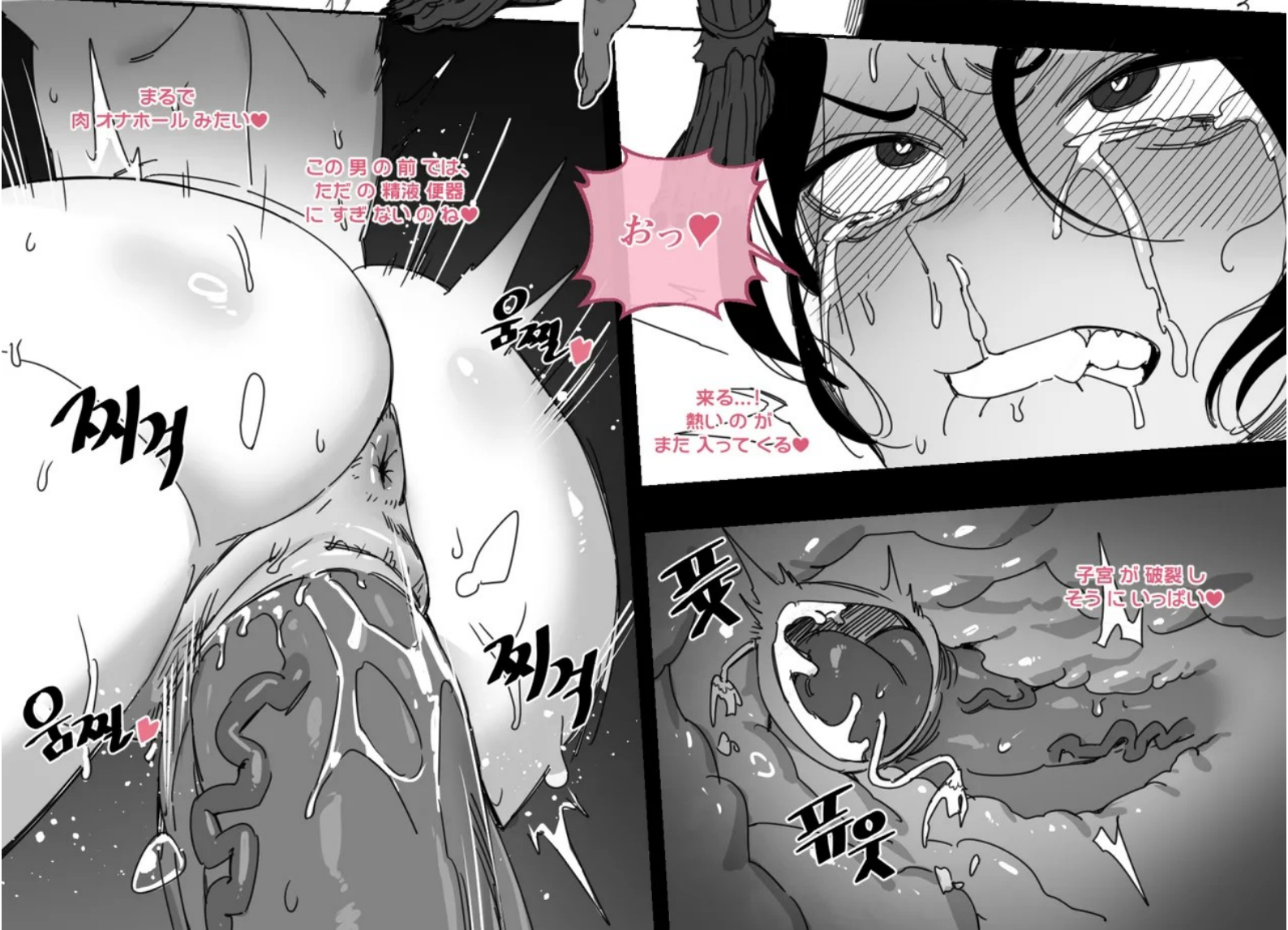
巫女だったから
男たちに気
で押されることは
なかったのに...

女としてこんな
無力感を
感じたことはない♡

퍼

대중

대중



まるで
肉オナホールみたい♡

この男の前では、
ただの精液 便器
にすぎないのね♡

おっ♡

来る...!
熱いのが
まだ入ってくる♡

오오♡

즈저

즈저

푹

푹

子宮が破裂し
そうにいっぱい♡

ま、待って!

ゆっくり...!

음미♡

くっ...?!

음미♡

음미♡

おっ?!

음미♡

おうっ

ん?

부딪

퐁

툼♡

툼♡

툼♡

툼♡

ちっ、壊れたのか。
使い物にならない
女だな。

おおっ♡

おっ♡

だめ...!
今終わったろ...

物足りない...!
まだ物足りない!

はうっ♡

もっと突き刺して
ほしい♡

はあ

もっとメチャ
クチャにしてほしい♡

100年の欲望
を晴らすには
まだ足りない!

大名様...
差し支えなければ、

どうかこちらを
お使い
くださいませ...♡

こんな下品な
言葉が頭も通さずスラスラ
出るなんて...

卑しい召使のこの汚い
穴も壊して
くださいませ...♡

本当に性奴隷
になってしまった♡

クハハ...!
「歯がなければ歯口で」か...

素晴らしい
召使の心構えだな。

おおっ♡

では、
遠慮なく
突き刺してやる!

こんな下品な
女は初めてだ。

もう後戻り
できない!...♡

アソコもアナルもこんなに簡単に壊れちゃうなんて♡

おおっ♡

おおっ♡

オニは素晴らしい♡

オニのアレが最高 おおおお♡♡

オニは偉大だ♡

오빠♡

오빠♡

저기♡

저기♡

저기♡

大名の性処理道具として全力を尽くします♡

下品な朝鮮女の血管に流れる汚い血の代わり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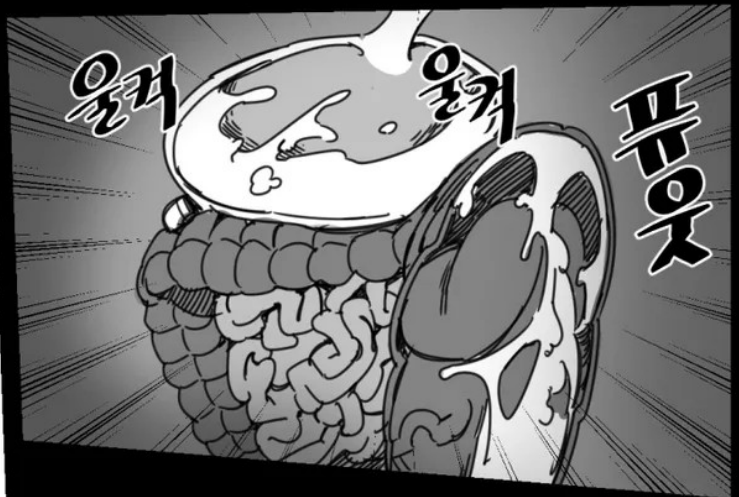
大名の濃厚な白濁液が流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せ♡

はあ

내몸

はうっ♡

大名の立派なアレで征服してくださいませ♡♡





はあっ♡こんな汚い
朝鮮女の穴を使っ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れからもよろしく
お願いいたします♡

何を言ってるんだ？
大名は一度使った
召使は再利用しない。

100年ぶりの
□れにしては悪く
なかった。

？



姉さん!

ヒョ!

はあっ...

ファリム
姉さん!!

화르르...

その後、山のふもとの村で、
若い娘たちが次々と襲われ
殺害される事件が発生した。

본 작품은 픽션이며, 본 작품에서 묘사된 등장인물,
지명, 단체, 그 밖에 일체의 명칭, 배경, 설정 및 사건 등은
허구구적으로 창작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존 인물, 회사, 지명, 사건 및 제품을
특정 또는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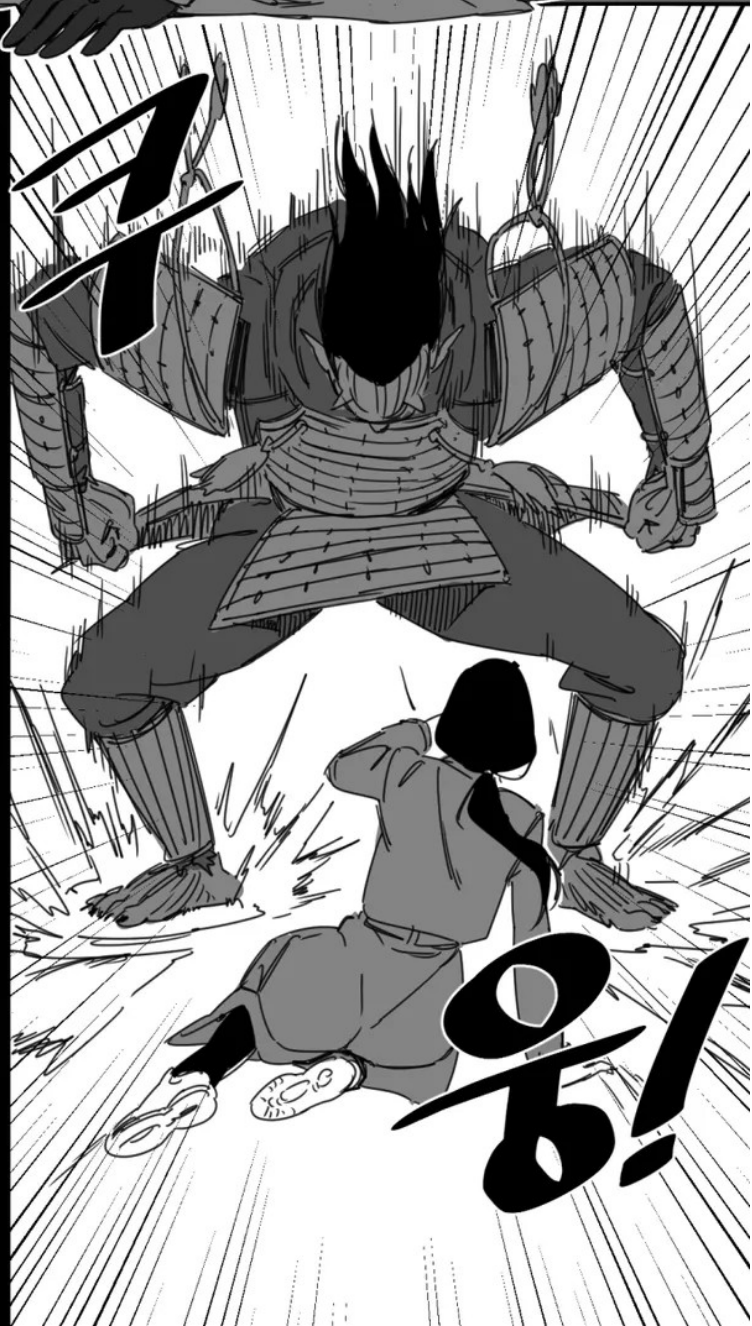
The lock is undone...
Is there a human here?

No,
I am not human.

I am your servant.

Clank

A human...





My legs are weak...!
It's too late to run.



It's a bit outdated,
but this is the only
way to survive...!



...?



I am
not human.



Is that so...
A hundred years
of abstinence.

Now that I've satisfied
my hunger, a bit of fun
wouldn't hurt.



Good,
I managed to fool
him for now.

I just need to hold out until
Bong-gil and the others
come to rescue me...



I am
your "servant."

If I can hold out...?!



또

Serve him well!

What...?!
He wasn't Japanese?

Is his size supposed to
match his h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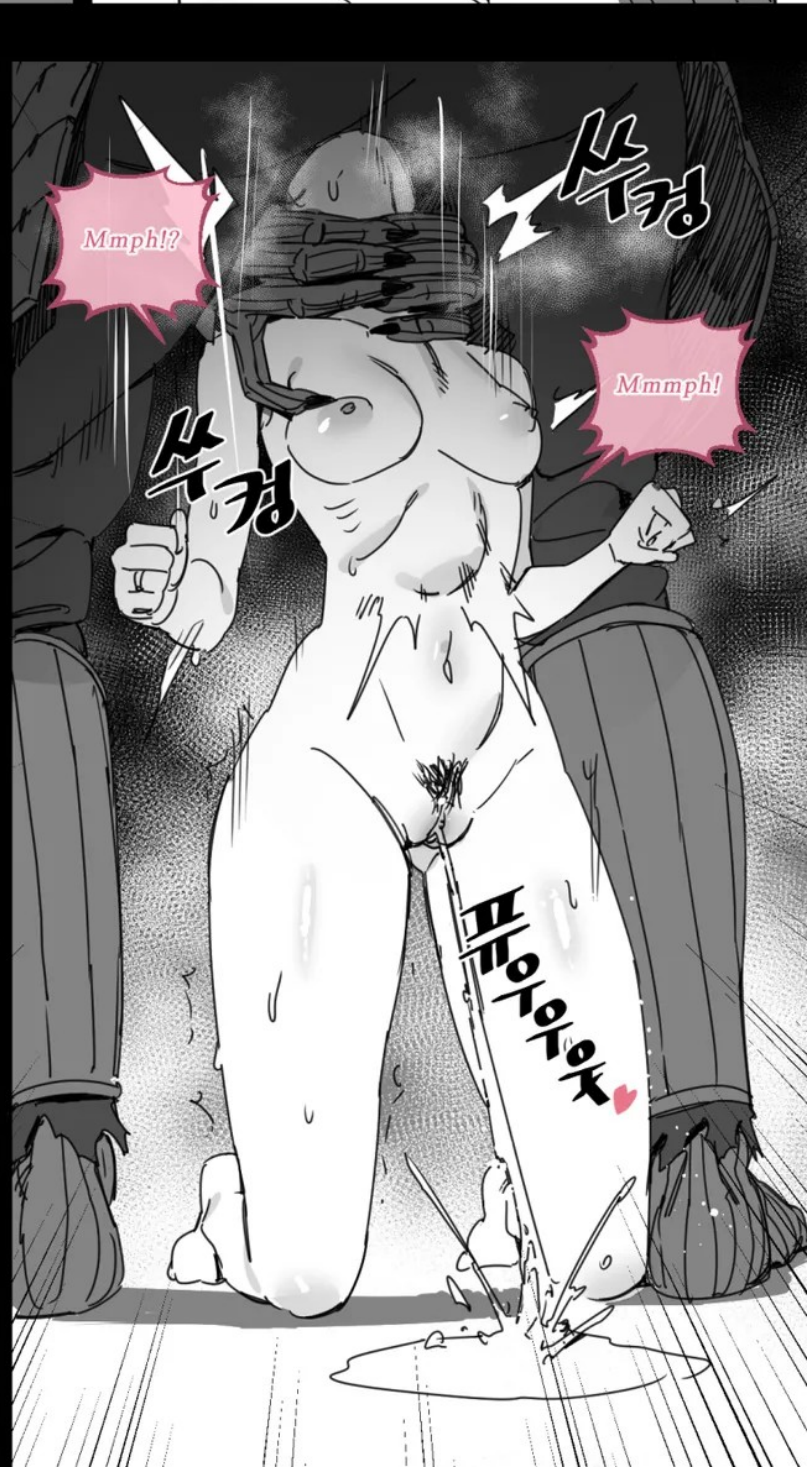
No way,
is that even possible?

If I give in to something
like this...!

쭈

한







30 minutes later-

Just a little more...

Bong-gil and the others
will come to rescue me soon...!



My hole and womb
are already torn to shreds...

Why aren't they coming?!!

Nngh

Why does it feel so good,
this demon's rod...

Hah

No children in my fate?
I guess this is why...!

At first,
it hurt so much I passed out,
but the deeper it goes,
the better it feels...!♥



Ahh♥

퍼

저저♥

저저♥

Ahh♥

Handled roughly with no empathy,
serving only as a receptacle
for one man's pleasure.

As a shaman,
I was never overwhelmed
by men's energy..

But as a woman,
I've never felt
so powerless before♥

대롱

대롱

I'm nothing more than
a meat on a hole♥

In front of this man,
I'm just a moaning seed dump,
nothing more, nothing less♥

Ooh♥

음역♥

It's coming!!
Another hot load is filling me up♥

저저

음역♥

저저

푹

Stuffed to the point
my womb might burst♥

푹

W-wait!

S-slowly...!

Gllk?!

Qㅍㅍ

Qㅍㅍ

Ooh?!

Qㅍㅍ

Hm?

Mmgh

부르릉

퐁

덕

덕

덕

덕

저와압

Tch, is she broken?
She's useless now.

Oohh♥

Mm♥

No...!
If he stops now...

I need more...!
I need so much more!

Hah

I want him
to go even harder♥

Nngh

I want him to ruin me
completely♥

A hundred years of desire,
and it's still not enough!

My lord...
if it wouldn't be
too much trouble,

please use
this hole instead...♥

These vulgar words
just keep coming out
without even thinking...

Please ruin this filthy
hole of your lowly servant...♥

I've truly become
a slave to him♥

Kahaha...!
"If there are no teeth,
then the gums will do," h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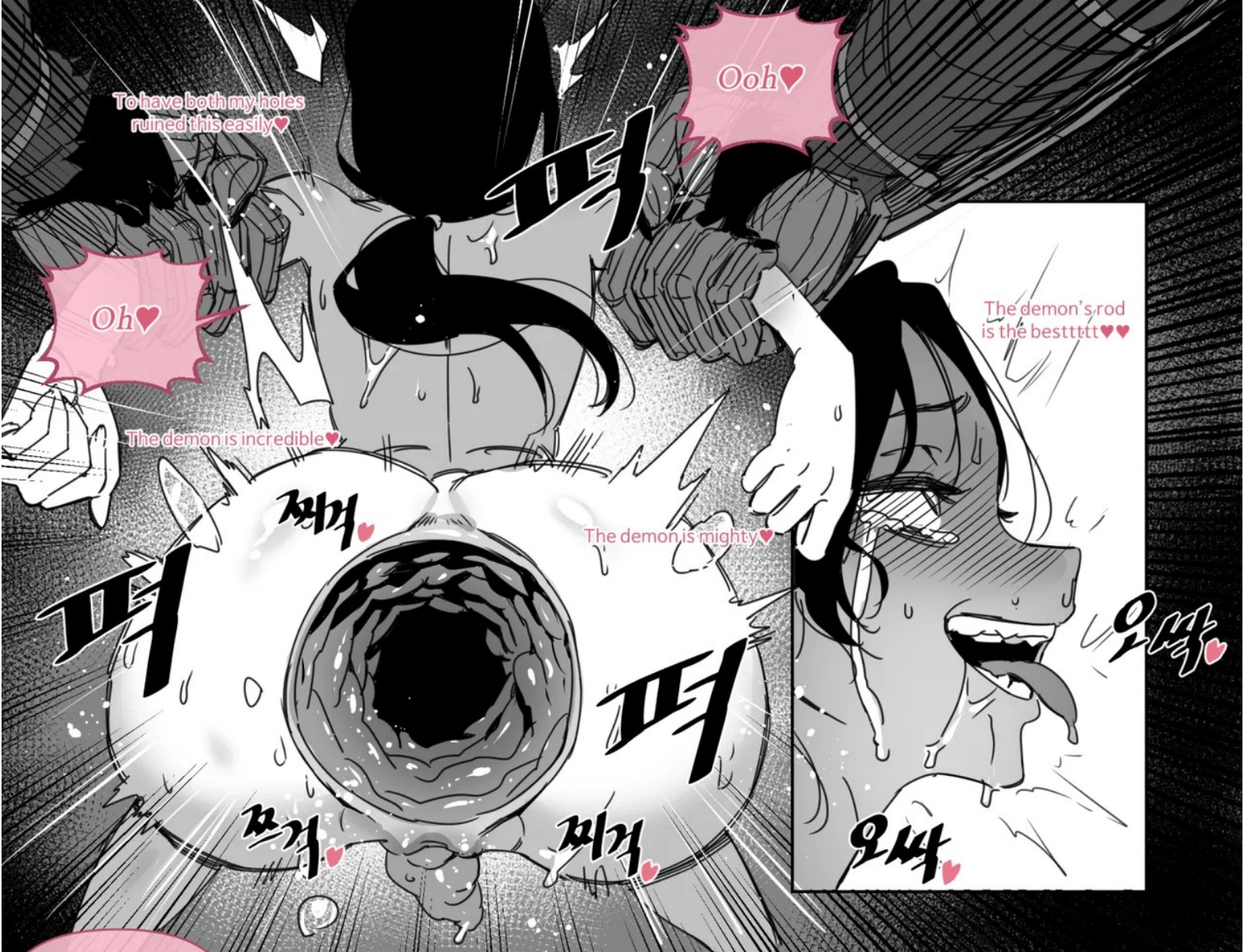
What an admirable
servant's spirit.

I've never seen a
woman this shameless.

Ooh♥

Then
I'll take you up on that!

There's no going
back now...♥



To have both my holes
ruined this easily♥

Ooh♥

Oh♥

The demon is incredible♥

The demon's rod
is the besttttt♥♥

The demon is mighty♥

오빠♥

오빠♥



As your sexual tool,
I will serve to my fullest♥

Instead of
the dirty blood
running in this filthy
Korean body,

please fill my veins
with your rich,
white essence♥

Conquer me with
your great rod,
my lord♥♥



Haa

내음

Hnngh♥

The joy of being conquered
by a superior male♥

This is the greatest
happiness a woman
can feel♥

츄름♥

츄름♥

Hahh♥

와아

I'll quit being a shaman
and live as the
demon's plaything instead♥

찌꺼♥

찌꺼♥

꿀렁

꿀렁

으악

으악

으악

퐁웃

Gulp



Haah♥
Thank you for using
the filthy hole of this
lowly Korean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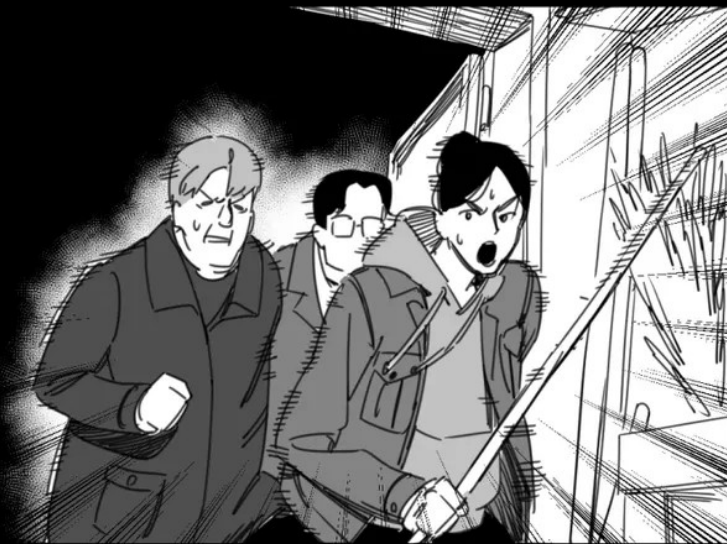
I look forward to serving
you more in the future♥

What nonsense is that?
The daimyo doesn't reuse
a servant once he's finished.

For my first pleasure
in a hundred years,
it wasn't bad.

HA?





본 작품은 픽션이며, 본 작품에서 묘사된 등장인물,
지명, 단체, 그 밖에 일체의 명칭, 배경, 설정 및 사건 등은
허구구적으로 창작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실존 인물, 회사, 지명, 사건 및 제품을
특정 또는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